

##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 은 정\*·정 명 선†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The Effect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Self-Esteem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Female College Students

Eun-Jeong Park\* and Myung-Sun Ch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0. 4. 12. 접수일 : 2010. 6. 24. 수정완료일 : 2010. 8. 4. 게재확정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self-esteem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weight, skin care, makeup, hair care, clothing selec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rated to 362 female college students living in Gwang-ju city, Korea. For analysis of data,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Cronbach'  $\alpha$ ,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emale college students' narcissistic personality was categorized into four factors, need for administration, leadership/self-confidence, need for power/entitlement, and superiority. Second, narcissistic personality significantly influence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he further examination of the effects showed that need for administration appeared to affect clothing selection, hair care, skin care, makeup, and weight. Third, self-esteem turned out to have positive effects on overall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he further examination of the effects showed that self-esteem appeared to affect clothing selection, skin care, hair care, makeup, and weight. The results indicated that female college students'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self-esteem were important factors to thei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marketing programs for fashion industries.

*Key words: narcissistic personality(자기애적 성격), self-esteem(자아존중감),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외모 관리 행동).*

#### I.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취지향적 가치의 중시는 집단 및 개인 간 극심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생활 국면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 점차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의 대학생들은 핵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에서 부모의 지대한 보호와 배려를 받으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 세

† 교신저자 E-mail : mschung@chonnam.ac.kr

대보다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자신들이 부모의 최대 관심 대상이라는 것과 자신들의 노력 없이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이러한 성장 배경은 또한 자기도취적인 우월감을 생성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기 위한 경쟁심을 부추김으로써 이기적인 행동을 유발할 개연성을 갖는다. 우리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왕자병, 공주병이라는 용어는 현대 젊은 세대의 자기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이기주의 혹은 개인주의적 경향이 자신에 대한 애착과 애정 같은 자기애(narcissism)에서 비롯된다는 김종숙<sup>1)</sup>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Lasch<sup>2)</sup>가 당시의 미국 사회를 자기애적 사회(narcissistic society)로 규정하고 전 국민에게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널리 존재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자기애적 성향을 갖는 것이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던 것과 현대인의 자기애적 성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하며, 자기애에 대한 위선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Kohut<sup>3)</sup>의 주장에 비취볼 때, 현재 젊은 세대의 자기도취적 혹은 자기애적인 사고와 행동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mmons<sup>4)</sup> 역시 자기애를 병리적인 개념으로보다는 정상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성격 특성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음을 주시하였다.

한편, Twenge<sup>5)</sup>는 1970년대 이후 출생한 미국인들을 “Generation Me”로 명명하면서 그들이 자기중심적인(self-worth)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더 이기적이고 특권의식과 자만심이 강

한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들이 보편적으로 자기애적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의 관점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애적 성격은 젊은 세대의 보편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김해정<sup>6)</sup>은 자기애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아름다움에 대한 숭배이며, 그들은 과시적이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한다고 하였고, 또한 김해정<sup>7)</sup>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애적 성향이 높을수록 신체 만족도, 신체 중요도, 의복 이미지 중요도 및 신체 이미지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실증함으로써 자기애와 외모 관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외모 관리에 관한 의류학 분야의 연구는 주로 신체 만족도, 신체 이미지 지각 혹은 자존심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고<sup>8)</sup>(김수경, 한동조; 정미실, 이금실, 조혜란, 최종명; 황진숙, 김윤희; 이윤정; 전경란, 이명희; 황윤정 외; 김재숙 외), 최근에는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과 그에 따른 외모 관리 행동이 주로 매스컴을 통해 보급되는 이상적인 신체 표준의 영향을 받는다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론과 여성의 신체는 보여져야 하는 대상으로 구성된다는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의 전망이 반영된 객체화된 신체 의식 이론에 근거하여 여성들의 외모 관리 행동을 설명하려는 연구들<sup>9)</sup>(이미숙; 이정순, 한경희; 황윤정; 김윤; 홍금희; 김선희; 김광경 외)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들의 외모 관리 행동 원인을 다각적으로 구명하려는 연구자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외모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1) 김종숙, “현대사회와 나르시시즘,” *수원대학교논문집* 15권 (1997), pp. 129-142.

2) C. L. Lasch,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Norton, 1979).

3) H.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7).

4) R. A. Emmons,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No. 1 (1987), pp. 11-17.

5) J. M. Twenge, *Generation Me: Why Today's Young Americans are More Confident, Assertive, Entitled-and More Miserable than Ever Before* (New York: Free Press, 2006).

6) 김해정, “자기애 성향에 따른 외모관여도 및 의복소비가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41.

7) 김해정, “외모관리: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신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110.

데에 중요한 요소라는 사회적 인식의 팽배에 따라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 관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현상을 주시할 때, 여성들의 외모 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심리적 변인들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이 변인들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자기애적 성격이 젊은 세대의 보편적 특성이라는 점과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자기애의 형태로 지각된다는 Wells와 Marwell<sup>10)</sup>의 연구,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이 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밝힌 Emmons<sup>11)</sup>의 연구에 근거하여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의 차원을 도출하고, 자기애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각각 외모 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기애적 성격(Narcissistic Personality)

자기애(narcissism)라는 용어는 자기(self)에 대한 관심의 집중<sup>12)</sup>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우월하게 생각하는 고양된 자기 개념<sup>13)</sup>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이 용어는 Ellis<sup>14)</sup>가 심리학 문헌에서 성적 감정을 잃고 자기 선망에 거의 완전히 몰입되는 경향을 지

- 8) 김수경, 한동조, “남녀고등학생들의 신체만족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양상분석,” *조형미디어학* 11권 4호 (2008), pp. 39-44.  
정미실, 이금실,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권 7호 (2007), pp. 131-140.  
조혜란, 최종명, “대학생의 성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향상행동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6권 4호 (2007), pp. 825-835.  
황진숙, 김윤희,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정감,” *복식* 56권 3호 (2006), pp. 143-155.  
이윤정, “신체 통제에 대한 신념이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권 7호 (2004), pp. 974-982.  
전경란, 이명희, “신체만족도와 심리적 특성이 외모향상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6호 (2003), pp. 643-653.  
황윤정, 조기여, “유태순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미용성형행동 연구,” *패션비즈니스* 17권 4호 (2003), pp. 17-25.  
김재숙, 이미숙, 김은정, 이혜원, “신체이미지가 체중조절 및 외모관리행동과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 생활과학연구지* 12권 1호 (1999), pp. 20-36.
- 9) 이미숙,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8권 6호 (2008), pp. 96-109.  
이정순, 한경희,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12권 2호 (2008), pp. 154-164.  
황윤정,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윤, “사회문화적 압력,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신체만족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홍금희, “자아존중감에 대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권 2호 (2006), pp. 348-357.  
김선희,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권 5호 (2003), pp. 99-108.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자아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권 9호 (2001), pp. 95-102.
- 10) L. E. Wells and G. Marwell,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everly Hills, CA: Sage, 1976).
- 11) R. A. Emmons,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8 No. 3 (1984), p. 296.
- 12) B. Burste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and Antisocial Personalities,” *Psychiatric Clinical North America* Vol 12 (1982), pp. 571-584.
- 13) L. M. Bogart, E. G. Benotsch and J. D. Pavlovic, “Feeling Superior but Not Threatened: The Relation of Narcissism to Social Comparis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6 No.1 (2004), pp. 35-44.

칭하기 위해 Narcissus-Like라는 용어를 사용한데서 비롯되었으며, Freud<sup>15)</sup>가 “On Narcissism”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자동성애(auto eroticism)로부터 대상애(object love)로 이행하는 심리적 발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narcissism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래 이 용어는 인간의 성격 발달과 정신 역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Kernberg<sup>16)</sup>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과도하게 스스로에게 몰입하고, 야심이 강하고, 웅대한 내용의 공상을 잘 하며,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지혜와 권력과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있다고 밝혔다.

Raskin과 Hall<sup>17)</sup>은 자기애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격 특성으로 간주하여 자기애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애적 성격검사지인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그 후 자기애가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NPI의 요인 구조를 밝혀려는 시도가 있어왔고, Emmons<sup>18)</sup>는 요인분석을 통해 리더십/권위, 자기 몰입/자기 칭찬, 우월성/거만, 착취/특권의식이라는 4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Raskin과 Terry<sup>19)</sup>는 권위, 자기 충분성, 우월성, 과시, 착취성, 허영의식, 특권의식이라는 7개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국내 연구자인 한수정<sup>20)</sup>은 지도력/권위, 특권의식/과시, 허영심, 웅대성, 주장성/주도성, 우월의식, 칭찬/주목받고 싶은

욕구라는 7개 요인을, 정남운<sup>21)</sup>은 리더십/자신감, 권위주의/특권의식, 과시/칭찬 욕구, 우월의식이라는 4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애라는 개념이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실증하며 자기애적 성격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성숙의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지켜나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는 한수정<sup>22)</sup>의 주장은 자기애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애적 성격은 외모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행동에 반영될 것으로 유추되며, 권위주의/특권의식 혹은 착취성에 의한 지나친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현대와 같은 경쟁 사회에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 잠재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행하는 지속적인 평가로 정의되며<sup>23)</sup>, 전통적으로 정신적, 사회적 생활 적응의 한 지표인 동시에 행동의 조절인자로 간주되고 있다<sup>24)</sup>. Evans<sup>25)</sup>는 자아존중감을 건강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신적 요소로 보았고, Mann et al.<sup>26)</sup> 역시 이를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행동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심리적 요인으

- 14) H. Ellis, “Auto-eroticism: A Psychological Study,” *Alienist and Neurologist* Vol. 19 (1989), pp. 260-299.
- 15) S. Freud,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1953,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16) O. F. Kernberg,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1975).
- 17) R. Raskin and C. S. Hall,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Vol. 45 (1979), p. 590.
- 18) R. A. Emmons (1984), op. cit., pp. 292-294.
- 19) R. Raskin and H. Terry, “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4 No. 5 (1988), pp. 890-902.
- 20) 한수정,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34.
- 21) 정남운, “자기애적 성격검사와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권 2호 (2001), pp. 225-227.
- 22) 한수정, op. cit., p. 7.
- 23) K. A. King, “Self-concept and Self-esteem: A Clarification of Terms,”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67 No. 2 (1997), pp. 68-70.
- 24) S. D. Hayes, P. R. E. Croker and K. C. Kowalski, “Gender Differences in Physical Self-perceptions, Global Self-esteem in Physical Activity: Evaluation of the Physical Self-perception Profile Model,” *Journal of Sport Behavior* Vol. 22 No. 1 (1999), pp. 1-13.
- 25) D. R. Evans, “Health Promotion, Wellness Programs, Quality of Life and the Marketing of Psychology,” *Canadian Psychology* Vol. 38 (1997), pp. 1-12.

로 보았다.

Elliot<sup>27)</sup>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쉬운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사람들은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이 동기적 요소를 갖는다고 보았다. Campbell et al.<sup>28)</sup>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Kaiser<sup>29)</sup>는 건강한 심리적 기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아존중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외모 관리는 이와 유사한 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Tucker<sup>30)</sup>는 자아존중감이 체형, 얼굴 등에 대한 만족도나 다양한 외모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의복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자신감이나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고 밝혔고, Irving<sup>31)</sup>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자아만족도가 높고, 외모 만족도 역시 높다고 밝혔다.

Lennon과 Rudd<sup>32)</sup>는 여성들은 날씬하고 젊은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 관리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이상적인 외모를 위한 노력은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며,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외모 관리 행동의 차이로 변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 Bloch와 Richins<sup>33)</sup> 역시 화장품, 두발 염색 혹은 의복과 액세서리 같은 외모 향상을 위한 제품의 이용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선재<sup>34)</sup>는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전경란, 이명희<sup>35)</sup>는 성인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외모 만족도, 성적 매력, 유행, 개성, 심미성 등과 정적 상관관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문혜경과 유태순<sup>36)</sup>은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유행성, 흥미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수래와 유숙희<sup>37)</sup>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새로운 유행의 적극적 수용에 영향을 주며, 이것은 다시 긍정적인 자아상의 형성으로 선 순환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 3. 외모 관리 행동(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외모란 의복과 액세서리(clothing), 신체 및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신체 변형에 의해 생성되는 총체적인 합성 이미지를 의미하며, 외모라는 개념에는 의복과 액세서리는 물론 다이어트, 헤어스타일링,

26) M. Mann, C. M. H. Hosman, H. P. Schaalma and N. K. de Vries, "Self-esteem in a Broad-spectrum Approach for Mental Health Promotion," *Health Education Research* Vol. 19 No. 4 (2004), p. 358.  
 27) G. C. Elliot, "Self-esteem and Self Consistenc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Link between Two Primary Motivat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49 No. 3 (1986), p. 207.  
 28) J. D. Campbell, P. D. Trapnell, S. J. Heine, I. M. Katz, L. F. Lavalley and D. R. Lehman,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1 (1996), p. 142.  
 29) S.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2nd ed. (New York: Macmillan, 1990), p. 174.  
 30) L. A. Tucker,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matotype and Body Cathexis of Collage Males," *Psychological Report* Vol. 50 (1982), pp. 983-989.  
 31) L. M. Irving, "Mirror Images: Effects of the Standard of Beauty on the Self-and Body-esteem of Woman Exhibiting Varying Levels of Bulimic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9 (1990), pp. 230-242.  
 32) S. J. Lennon and N. A. Rudd,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Vol. 23 No. 2 (1994), pp. 94-117.  
 33) P. H. Bloch, and M. Richins, "You Look 'Marvelous': The Pursuit of Beauty and the Marketing Concept," *Psychology and Marketing* Vol. 9 No. 1 (1992), pp. 3-15.  
 34) 이선재, "한·미 대학생 및 교포 대학생 간의 의복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5 No. 2 (1991), pp. 173-187.  
 35) 전경란, 이명희, op. cit., p. 648.  
 36) 문혜경, 유태순,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와 의복태도 및 화장도에 관한 연구," *복식* Vol. 53 No. 4 (2003), p. 108.  
 37) 신수래, 유숙희,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패션 트렌드 수용도," *복식문화연구* Vol. 13 No. 2 (2005), p. 287.

화장품 사용, 문신, 피어싱을 포함한 신체 변형의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외모 관리는 외모와 관련된 개인의 모든 관심, 의사 결정 및 행동을 포괄하며, 의복 아이템을 구매하고 착용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행동과 사고 과정 및 신체 변형의 과정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건 간에 매일 외모 관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외모 관리를 보편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sup>38)</sup>, Lee와 Johnson<sup>39)</sup>은 외모 관리 행동의 범위를 의복을 선택하는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성형 수술 과정과 같은 극단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한편, Daly et al.<sup>40)</sup>은 현장 연구를 통해 성(gender)과 관계(relationship)의 차이가 외모 관리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들의 외모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과 사람들 상호간의 관계가 발달함에 따라 외모 관리에 덜 참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Lennon과 Rudd<sup>41)</sup> 역시 사람들이 적절한 외모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성 역할의 한 기능이며, 여성들에게 매력적이거나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신체적 특성들은 문화적으로 정의된다고 보았고, 20세기 후반 미국 사회에는 날씬함에 대한 무의식적인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날씬함은 아름답고, 도덕적이고, 정상적이고, 성숙되고, 건강한 것이라는 관념이 미학, 심리학, 의학, 신학 및 매스미디어에 의해 지지된다는 것이다. Cash<sup>42)</sup>는 체중이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적 매력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였으며,

그 다음 상체, 몸통 및 하체 순이었다고 밝히고, 그것들 모두가 신체 사이즈나 날씬함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주시하였다.

그러나 Heinberg et al.<sup>43)</sup>은 여성들이 날씬함 외에도 큰 가슴이나 근육질의 체격 같은 또 다른 외모 표준을 성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자신들을 변형시키려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날씬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얼굴과 희고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를 지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체중과 체형 관리, 의복과 액세서리 및 화장품 선택과 함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미용 성형 수술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Rudd와 Lennon<sup>44)</sup>은 여성들이 날씬하고 젊어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비실용적이거나 고통을 주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비실용적인 외모 관리는 가발을 착용하는 것, 화장하는 데에 매일 상당한 시간 소비하는 것 혹은 신체 동작을 방해하는 의복과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고통스러운 외모 관리는 귀나 코를 뚫는 것, 치아를 교정하는 것, 뽀족한 앞부리를 지닌 굽 높은 구두를 착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험한 외모 관리는 단식, 가슴 확대, 얼굴 성형 수술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정명선<sup>45)</sup>은 대다수의 연구 대상 여성들이 화장, 헤어 관리, 마사지나 팩 사용, 기능성 화장품 사용 및 운동 등의 일상적인 외모 관리 행동을 더 자주하고 있으며, 체중 감소를 위한 다이

38) S. B. Kaiser, op. cit., p. 5.

39) L. Lee and K. K. P. Johnson, "Factors Related to Engagement Behavio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27 No. 3 (2009), p. 163.

40) J. A. Daly, E. Hogg and S. Burns, "Sex and Relationship Affect Social Self-grooming,"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Vol. 7 (1983), pp. 183-189.

41) S. J. Lennon and N. A. Rudd, op. cit., pp. 94-117.

42) T. F. Cash, "The Great American Shape-up: We're Healthier than ever, Fitter than ever But Less Satisfied with How We Look," *Psychology Today* Vol. 20 No. 4 (1986), pp. 30-37.

43) L. J. Heinberg, J. K. Thompson and S. Storm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Vol. 17 No. 1 (1995), pp. 81-89.

44) N. A. Rudd, and S. J. Lennon, "Body Imag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 in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8 No. 3 (2000), pp. 152-162.

45) 정명선,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3권 3호 (2003), pp. 165-179.

어트, 설사제와 구토제 복용 및 흡연, 성형 수술 등 위험이나 고통을 수반하는 극단적인 외모 관리 행동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더 낮고 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의 의도와 경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전현진<sup>46)</sup>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의 기준 속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결점이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 관리 행동을 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 여성들은 헤어나 의복, 체중에 비해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문헌 고찰을 통해 자기애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외모 관련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 두 변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외모 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외모 관리 행동의 차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26세까지의 여대생 36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학년 분포는 1학년이 52명(14.4%), 2학년이 113명(31.2%), 3학년이 145명(40.1%), 4학년이 52명(14.4%)으로 파악되었고,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82명(22.7%), 자연과학계열이 122명(33.7%), 예체능계열이 158명(43.6%)이었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300만 원 미만인 88명(24.3%), 300~500만 원 미만인 130명(35.9%), 500만 원 이상이 144명(39.8%)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용돈은 20만 원 미만인 73명(20.1%), 20~40만 원 미만인 192명(53%), 40만 원 이상이 97명(26.8%)으로 파악되었으며, 월 평균 외모 관리 비용은 20만 원

미만이 236명(65.2%), 20~40만 원 미만이 98명(27.1%), 40만 원 이상이 28명(7.8%)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 1) 자기애적 성격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과시적이며 자신을 존중하는 성격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정남운<sup>47)</sup>의 자기애적 성격 요인 분석을 예비 조사를 통해 수정하여 총 19문항을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 2) 자아존중감

자아-가치 혹은 자아-수용의 총체적 감정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sup>48)</sup>의 Self-Esteem Scale 8문항을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 3) 외모 관리 행동

자신의 외모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의복 선택, 체중 관리, 피부 관리, 메이크업 및 헤어 관리 행동을 의미한다. 외모 관리 행동 분류는 전현진<sup>49)</sup>의 연구를 따랐으며, 정명선<sup>50)</sup>, 황진숙과 김윤희<sup>51)</sup>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총 23문항을 제작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외한 총 16문항을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 4) 응답자의 배경 특성

응답자의 연령, 전공, 학년, 형제-자매의 수, 가정의 직업, 가정의 월 평균 수입, 월 평균 용돈, 월 평균 외모 관리 비용 등을 묻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7.0 통계 Package를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Cronbach'  $\alpha$ ),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6) 전현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된 신체의식 및 신체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p. 26-52.

47) 정남운, op. cit., pp. 221-237.

48)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1965), pp. 304-319.

49) 전현진, op. cit., p. 52.

50) 정명선, op. cit., pp. 165-179.

51) 황진숙, 김윤희, op. cit., pp. 143-155.

IV. 결과 및 논의

1. 여대생의 외모 관리 행동 실태

여대생의 외모 관리 행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외모 관리 행동 총 16문항의 신뢰도는  $\alpha=0.89$ 로 파악되었다. 여대생들의 일반적인 외모 관리 행동은 체중 관리, 피부 관리, 메이크업, 헤어 관리, 의복 선택으로 분류되었으며,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외모 관리 행동은 메이크업으로 나타났고, 의복 선택, 피부 관리, 헤어 관리, 체중 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여성이 가장 보편적으로 실천하는 외모 관리 행동이 체중 조절 행동인 것으로 나타난 김선희<sup>52)</sup>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며, 이는 여자 대학생들의 외모

에 대한 관심이 체중 조절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외모 관리 행동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 차원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에 관한 19문항을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고유치 1.0 이상인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자기애적 성격의 전체 문항 신뢰도는  $\alpha=0.92$ 였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0.80 이상으로 파악되었고, 이 요인들이 자기애적 성격을 설명한 총 변량은 63.18%였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42.33%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모습을 과시하여 사람

<표 1> 여대생의 외모 관리 행동 실태

(N=362)

외모 관리 행동		횟수	평균(표준편차)
메이크업	선크림, BB 크림 사용		4.19(0.94)
	메이크업에 신경 씀		3.80(1.03)
	전체		3.99(0.84)
의복 선택	유행 의복 구입		3.63(0.96)
	최신 유행 액세서리 구입		3.45(1.04)
	신체적 장점이 돋보일 수 있는 스타일 선택		4.05(0.88)
	굽 높은 구두나 키 높이 신발(운동화) 착용		3.61(1.15)
	결점을 커버하기 위한 의복 스타일 선택		4.08(0.87)
전체		3.77(0.66)	
피부 관리	마사지 혹은 팩		3.66(0.94)
	피부과 혹은 피부 관리실 이용		2.82(1.20)
	미백, 주름 방지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사용		3.62(1.12)
	전체		3.37(0.94)
헤어 관리	최근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3.12(1.24)
	유행에 맞춘 멋내기 검색		3.27(1.05)
	전체		3.19(0.98)
체중 관리	운동(ex: 요가, 헬스, 배드민턴, 테니스, 수영, 줄넘기, 걷기, 에어로빅, 댄스, 발레)		3.10(1.11)
	식사량을 조절		3.06(1.10)
	저칼로리 식품을 골라 먹음		2.74(1.11)
	다이어트와 관련된 식품을 먹기도 함		2.50(1.25)
	전체		2.85(0.94)
전체 문항 신뢰도 $\alpha=0.89$			

52) 김선희, op. cit., p. 6.



들로부터 주목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과시/칭찬 욕구”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의 8.64%를 설명하였고, 리더십, 주도성, 주장성, 자신감 등을 표현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리더십/자신감”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전체 변량의 7.22%를 설명하였고, 여기에는 권력 추구성, 성공에 대한 강한 욕구, 특권의식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권력 욕구/특권의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전체 변량의 5.99%를 설명하였고, 자신이 특별하고 뛰어나다는 우월의식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

월의식”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대학생들의 자기애적 성격을 리더십/자신감, 권력 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 욕구, 우월의식이라는 4개의 요인으로 분류한 정남운<sup>53)</sup>의 연구 결과에 비취볼 때 요인별 설명력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의 자기애적 성격에서 과시/칭찬의 욕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이 주시된다.

3.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이 외모 관리 행동에 영

<표 2> 자기애적 성격의 차원

요인	자기애적 성격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Item-to-total correlation
요인 1 과시/ 칭찬 욕구	나는 내 몸매(또는 체격)를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0.78	0.20	0.06	0.08	0.65
	나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0.74	0.19	-0.02	0.19	0.61
	나는 거울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0.66	0.17	0.18	0.13	0.59
	나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말해 주기 때문에 내가 뽐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66	0.13	0.25	0.17	0.61
	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0.63	0.14	0.46	0.21	0.67
	나는 새로운 유행과 스타일을 주도하기를 좋아한다.	0.61	0.22	0.31	0.06	0.59
요인 2 리더십/ 자신감	나는 타고난 리더이다.	0.19	0.78	0.26	0.10	0.73
	나는 내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한다.	0.22	0.75	0.24	0.13	0.70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0.21	0.74	0.27	0.15	0.70
	나는 자기주장을 잘한다.	0.14	0.69	0.17	0.22	0.60
	나는 거의 모든 일을 과감하게 하려고 한다.	0.24	0.63	0.26	0.04	0.59
요인 3 권력 욕구/ 특권의식	나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0.06	0.32	0.77	0.17	0.73
	나는 리더가 되려하는 편이다.	0.09	0.17	0.74	0.19	0.63
	사람들은 항상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	0.23	0.30	0.69	0.04	0.66
	나는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0.27	0.34	0.66	0.09	0.69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0.32	0.21	0.61	0.22	0.58
요인 4 우월의식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18	0.15	0.06	0.85	0.66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0.17	0.11	0.20	0.82	0.66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0.29	0.26	0.61	0.66	0.60
	고유치	7.85	1.64	1.37	1.14	
	총 변량(%)	41.33	8.64	7.22	5.99	
	누적 변량(%)	41.33	49.97	57.18	63.18	
	신뢰도 계수(α)	0.84	0.85	0.85	0.80	

53) 정남운, op. cit., pp. 225-228.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을 독립변인으로, 외모 관리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자기애적 성격이 외모 관리 행동을 설명한 총 변량은 37.5%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자기애적 성격이 외모 관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F=216.08, p<0.001$ ). 이는 자기애적 성격이 여대생의 외모 관리 행동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 변인이라는 것과 자기애적 성격이 강할수록 외모 관리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성격이 강한 사람이 외모 관련 행동에 더 열중한다는 Jackson et al.<sup>54)</sup>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자기애적 성향이 강할수록 화장과 마사지를 많이 하고, 의복 이미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김해정<sup>55)</sup>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할수록 체형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김해정<sup>56)</sup>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차원별 자기애적 성격이 외모 관리 행동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시/칭찬 욕

<표 3> 자기애적 성격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자기애적 성격)	종속변인 (외모 관리 행동)	B	표준 오차	$\beta$	t	F값	R <sup>2</sup>
과시/칭찬 욕구	체중 관리	0.36	0.09	0.26	4.13***	22.16***	19.9
리더십/자신감		0.22	0.09	0.16	2.35*		
권력 욕구/특권의식		0.26	0.09	0.18	2.73**		
우월의식		-0.19	0.08	-0.14	-2.52*		
과시/칭찬 욕구	피부 관리	0.40	0.08	0.31	5.20***	34.92***	28.1
리더십/자신감		0.16	0.08	0.12	1.95*		
권력 욕구/특권의식		0.23	0.08	0.18	2.80**		
우월의식		0.02	0.07	0.01	0.23		
과시/칭찬 욕구	메이크업	0.40	0.08	0.32	4.97***	17.83***	16.7
리더십/자신감		0.10	0.08	0.08	1.19		
권력 욕구/특권의식		0.07	0.08	0.06	0.81		
우월의식		0.01	0.07	0.01	0.11		
과시/칭찬 욕구	헤어 관리	0.54	0.09	0.37	6.14***	30.96***	25.8
리더십/자신감		0.04	0.09	0.03	0.42		
권력 욕구/특권의식		0.30	0.09	0.21	3.16		
우월의식		-0.07	0.08	-0.05	-0.85		
과시/칭찬 욕구	의복 선택	0.56	0.06	0.50	9.71***	75.36***	45.8
리더십/자신감		0.07	0.06	0.06	1.11		
권력 욕구/특권의식		0.18	0.06	0.16	2.85**		
우월의식		0.07	0.05	0.06	2.85**		
자기애적성격 (전체)	외모 관리 행동 (전체)	0.74	0.05	0.61	14.70***	216.08***	37.5

\* $p<0.05$ , \*\* $p<0.01$ , \*\*\* $p<0.001$ 에서 유의함.

54) L. A. Jackson, K. S. Ervin and C. N. Hodge, op. cit., pp. 357-370.

55) 김해정 (2004), op. cit., pp. 81-86.

56) 김해정 (2008), op. cit., p. 114.

구가 의복 선택( $\beta=0.50, p<0.001$ ), 헤어 관리( $\beta=0.37, p<0.001$ ), 피부 관리( $\beta=0.31, p<0.001$ ), 메이크업( $\beta=0.32, p<0.001$ ), 체중 관리( $\beta=0.26, p<0.001$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 관리 행동의 주된 동기가 타인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Freud<sup>57)</sup>의 자기애적 성격 소지자는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자아존중감의 전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alpha=0.80$ 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외모 관리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외모 관리 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 $F=66.78, p<0.001$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자아존중감이 외모 관리 행동을 설명한

총 설명력은 15.6%로 파악되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 관리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차원별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의복 선택( $\beta=0.47, p<0.001$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의복을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신체 모습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고 밝힌 정미실과 이금실<sup>58)</sup>의 연구 결과와 자아존중감이 의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선재<sup>59)</sup>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피부 관리( $\beta=0.18, p<0.001$ )와 헤어 관리( $\beta=0.29, p<0.001$ ), 메이크업( $\beta=0.28, p<0.001$ ), 체중 관리( $\beta=0.18, p<0.01$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장품, 두발 염색 혹은 의복과 액세서리 같은 외모 향상을 위한 제품의 이용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 Bloch와 Richins<sup>60)</sup>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이 화장도가 더 높다는 문혜경과 유태순<sup>61)</sup>의 연구와 외모 및 자아존중감 향상의 일환으로 체중 조절이나 의복 행동이 나타난다는 Rudd와 Lennon<sup>62)</sup>의

<표 4> 자아존중감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외모 관리 행동)	B	표준 오차	$\beta$	t	F값	R <sup>2</sup>
자아존중감	체중 관리	0.30	0.09	0.18	3.40**	11.56**	3.1
	피부 관리	0.50	0.08	0.32	6.34	40.21***	10.0
	메이크업	0.43	0.08	0.28	5.63***	31.67***	8.1
	헤어 관리	0.51	0.09	0.29	5.66***	32.00***	8.2
	의복 선택	0.63	0.06	0.47	10.03***	100.66***	21.9
자아존중감 (전체)	외모 관리 행동 (전체)	0.47	0.06	0.40	8.17***	66.78***	15.6

\*\* $p<0.05$ , \*\*\* $p<0.001$ 에서 유의함.

57) S. Freud, op. cit.

58) 정미실, 이금실, op. cit., pp. 131-140.

59) 이선재, op. cit., pp. 173-187.

60) P. Bloch, and M. Richins, op. cit., pp. 3-15.

61) 문혜경, 유태순, op. cit., p. 109.

62) S. J. Lennon, and N. A. Rudd, op. cit., pp. 94-117.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지니는 젊은 세대가 외모를 중요한 경쟁력으로 간주하여 외모 향상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 및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주시하고, 특히 외모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시기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애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외모 관리 행동(체중 관리, 피부 관리, 메이크업, 헤어 관리, 의복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 차원은 과시/칭찬 욕구, 리더십/자신감, 권위주의/특권의식, 우월의식이라는 4개의 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여대생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칭찬받고자 하는 자기애적 성격이 강한 것( $M=3.50$ ,  $SD=0.55$ )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들의 자아존중감 수준( $M=3.84$ ,  $SD=0.55$ )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자기애적 성격이 외모 관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시/칭찬 욕구가 차원의 모든 외모 관리 행동 차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여대생들의 외모 관리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의복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와 자아존중감이 여대생의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수라는 것과 자기애적 성격 차원 중 특히 과시/칭찬 욕구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에 있는 여대생의 외모 관리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의 차원별 외모 관리의 중시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외모 관련 사업 분야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여대생의 심리적, 행동적 상태를 잘 반영하는 자기애적 성격의 차원을 도출하였고, 자기애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한 지역에서 편의 추출한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 상태를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세밀한 자기에 측정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며, 요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자기애적 성격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외모 관리 행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윤 (2006). “사회문화적 압력,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된 신체 의식이 신체 만족과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자아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의복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권 9호.
- 김선희 (2003).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외모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권 5호.
- 김수경, 한동조 (2008). “남녀고등학생들의 신체 만족도에 따른 외모 관리 행동 양상분석.” *조형미디어학* 11권 4호.
- 김재숙, 이미숙, 김은정, 이혜원 (1999). “신체 이미지가 체중 조절 및 외모 관리 행동과 의복 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2권 1호.
- 김종숙 (1997). “현대사회와 나르시시즘.” *수원대학교 논문집* 15권.
- 김해정 (2004). “외모 관리: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신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정 (2008). “자기애 성향에 따른 외모관여도 및 의복소비가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혜경, 유태순 (2003).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와 의복태도 및 화장도에 관한 연구.” *복식* 53권 4호.
- 신수래, 유숙희 (2005). “자아존중감과 신체 만족도에 따른 패션 트렌드 수용도.” *복식문화연구*

- 13권 2호.
- 이미숙 (200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들의 신체 이미지와 의복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8권 6호.
- 이선재 (1991). “한미 대학생 및 교포 대학생 간의 의복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권 2호.
- 이윤정 (2004). “신체 통제에 대한 신념이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권 7호.
- 이정순, 한경희 (2008).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 이미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12권 2호.
- 전경란, 이명희 (2003). “신체 만족도와 심리적 특성이 외모 향상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6호.
- 전현진 (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된 신체 의식 및 신체 존중감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와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권 2호.
- 정명선 (2003).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과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3권 3호.
- 정미실, 이금실(2007).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 이미지와 의복 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권 7호.
- 조혜란, 최종명 (2007). “대학생의 성에 따른 신체 만족도와 외모 향상행동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6권 4호.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금희 (2006). “자아존중감에 대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 이미지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권 2호.
- 황윤정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윤정, 조기여, 유태순 (2003).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미용성형행동 연구.” *패션비즈니스* 17권 4호.
- 황진숙, 김윤희 (2006). “외모 관리 행동에 따른 신체 이미지 및 심리적 안정감.” *복식* 56권 3호.
- Bloch, P. H. and M. Richins (1992). “You Look ‘Marvelous’: The Pursuit of Beauty and the Marketing Concept.” *Psychology and Marketing* Vol. 9.
- Bogart, L. M., E. G. Benotsch and J. D. Pavlovic (2004). “Feeling Superior but Not Threatened: The Relation of Narcissism to Social Comparis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6, No. 1.
- Bursten, B.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and Antisocial Personalities.” *Psychiatric Clinical North America* Vol. 12.
- Campbell, J. D., P. D. Trapnell, S. J. Heine, I. M. Katz, L. F. Lavalley, and D. R. Lehman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1.
- Cash, T. F. (1986). “The Great American Shape-up: We're Healthier than ever, Fitter than ever but Less Satisfied with How We Look.” *Psychology Today* Vol. 20, No. 4.
- Daly, J. A., E. Hogg and S. Burns (1983). “Sex and Relationship Affect Social Self-grooming.”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Vol. 7.
- Elliot, G. C. (1986). “Self-esteem and Self Consistenc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Link between Two Primary Motivat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49, No. 3.
- Ellis, H. (1989). “Auto-eroticism: A Psychological Study.” *Alienist and Neurologist* Vol. 19.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8.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Vol. 52, No. 1.
- Evans, D. R. (1997). "Health Promotion, Wellness Programs, Quality of Life and the Marketing of Psychology." *Canadian Psychology* Vol. 38.
- Freud, S. (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Hayes, S. D., P. R. E. Croker and K. C. Kowalski (1999). "Gender Differences in Physical Self-perceptions, Global Self-esteem in Physical Activity: Evaluation of the Physical Self-perception Profile Model." *Journal of Sport Behavior* Vol. 22, No. 1.
- Heinberg, L. J., J. K. Thompson and S. Stormer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Vol. 17, No. 1.
- Irving, L. M. (1990). "Mirror Images: Effects of the Standard of Beauty on the Self-and Body-esteem of Woman Exhibiting Varying Levels of Bulimic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9.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2nd ed.). New York: Macmillan.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ing, K. A. (1997). "Self-concept and Self-esteem: A Clarification of Terms."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67, No. 2.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sch, C. L.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Norton.
- Lee, J. and K. K. P. Johnson (2009). "Factors Related to Engagement Behavio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27, No. 3.
- Lennon, S. J. and N. A. Rudd (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Vol. 23, No. 2.
- Mann, M., M. H. Hosman, H. P. Schaalma and N. K. de Vries (2004). "Self-esteem in a Broad-spectrum Approach for Mental Health Promotion." *Health Education Research* Vol. 19, No. 4.
- Raskin, R. and C. S. Hall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Vol. 45.
- Raskin, R. and H. Terry (1988). "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4, No. 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 Rudd, N. A. and S. J. Lennon (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 in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8, No. 3.
- Tucker, L. A. (1982).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matotype and Body Cathexis of Collage Males." *Psychological Report* Vol. 50.
- Twenge, J. M. (2006). *Generation Me: Why Today's Young Americans are More Confident, Assertive, Entitled-and more Miserable than ever Before*. New York: Free Press.
- Wells, L. E. and G. Marwell (1976).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everly Hills, CA: Sage.